

군민 눈높이 맞춘 소통 최우선

군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노력

김광수 의장 포부

김광수 의장은 올 하반기를 결산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군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며 올해 하반기처럼 정신없이 지나간 해는 없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도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상을 묻는 질문에는 “소통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으며, 중장기적인 진안의 미래를 고안하고자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올바른 대안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다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진안군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군민이 행복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장



이우규 부의장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7월 하반기의회를 개원하고 출범해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8대 하반기 진안군의회 2020년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2021년도 새해 다짐을 살펴보자.



조준열 의원



박관순 의원



신갑수 의원



정옥주 의원



김민규 의원

군 청정환경 보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앞장

이우규 부의장은 진안군의 청정환경보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우규 부의장은 우리지역은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용담댐이 위치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임을 인지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퇴비부숙도 검사무화 시행과 지역 내 가축분뇨의 처리상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대책미션을 주문하였고, 객관적인 기준미션으로 합리적인 쓰레기 매립장 관리와 주변미물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군내 단일요금제의 불합리한 체계를 지적하여 교통복지 시각지대 해소에 노력했으며,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사업 지원을 일원화하는 ‘생활복지카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유산과 체육시설을 활용한 활력넘치는 진안구현에 앞장

조준열 의원(운영행정위원장)은 관내 문화유산과 체육시설을 활용한 활력 넘치는 진안구현에 앞장서 왔다.

조 의원은 진안은 아름다운 산세와 풍부한 수량으로 예로부터 문화유산과 산림문화자산이 풍부한 지역임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발

굴과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19와 관련, 스포츠 관련 단체들이 국내 전지훈련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과 지역 체육시설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건의했다. 이처럼 지역의 문화유산과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마이산휴게소 홍보물, 버스 및 택시랩핑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홍보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안전한 군민의 삶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앞장

박관순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안전한 군민의 삶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박관순 위원장은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보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면별 지역실정에 맞춰 농번기철 보건지소의 탄력적 근무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

주민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 지원 일원화 ‘생활복지카드 시스템’ 제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보완 등 요구

장애 아이들 권리 증진 방안 마련 인구유입 정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 청년정책 초석 다지는 기반도 조성

요구했으며, 지난 여름 용담댐 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기관 간 협업체계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사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다양한 어르신 복지 구현 및 편의시설 보완 노력

신갑수 의원은 관내 어르신들 위한 다양한 복지 구현에 노력해 왔다. 신갑수 의원은 “우리군은 전체 인구 2만 5천여 전체 인구 중 노

인인구가 34.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젊은날을 바친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했다며,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소홀 문제를 언급했고, 관리소홀로 방치된 운동기구는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도시 진안 구현에 앞장섰다.

여성·청소년 권익신장·권리증진 노력

정옥주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신장 및 권리증진에 노력해왔다. 정옥주 의원은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이 문화혜택을 향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며,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아이들의 발달특성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 아이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진안군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

는데 힘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센터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진안군이 명실상부 자원봉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지를 다졌다.

청년과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은 힘’

김민규 의원은 진안의 미래인 청년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청년이 살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진안이 산다는 절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장기계획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인구유입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인구유입정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청년의 연영을 늘리고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한 ‘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진안군 청년정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